

특별법도 소용없다... 일상 파고든 보험사기

광주일보 공익캠페인
보험사기 악순환 뿌리 뽑자
 <상> 줄어 들지 않는 보험사기

광주경찰청은 지난 3월 외제차를 이용해 8억 원 상당의 보험 사기를 벌인 일당 41명을 무더기로 검거했다. 이들은 지난 2022년 7월부터 1년여 동안 총 55회에 걸쳐 광주와 전남지역 일에서 진로를 변경하는 차량을 골라 고의로 들이받는 등 사고를 낸 뒤, 보험사로부터 합의금과 미수선 수리비 등 명목으로 8억 153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챙겼다.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시는 지난 2월 보험사기 행각을 하다 벌금 처분을 받은 광주시 소속 공무원을 적발해 징계 처분했다. 해당 공무원은 지난 2023년 교통사

보험업 종사자·병의원·브로커 등 결탁 조직화·지능화
 광주·전남 검거건수 매년 늘어...60대 이상 비율 증가세
 '사고내용조작' 58.2% 차지... '고액 알바' 속지 않아야

고로 한방병원에 입원한 뒤 어머니를 간병인으로 고용한 것처럼 속여 간병비 보험금 60만원을 허위로 청구했다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만원의 구약식 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전남 지역에서 보험사기 범행이 끊이지 않고 반복되고 있어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보험사기 처벌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특별법이 개정됐음에도 보험사기가 줄어들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보험업 관련 종사자, 병·의원 및 브로커

등이 결탁해 보험사기가 조직화·지능화 되고, 인터넷 등지에서 '고액 알바' 등 문구를 내세워 보험사기 동참을 유도하는 등 일상으로 파고들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20일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광주 지역 보험사기 검거 건수는 2021년 285건, 2022년 170건, 2023년 95건으로 줄어 들다가 2024년 158건으로 급증했다. 전남은 2021년 70건, 2022년 74건, 2023년 79건, 2024년 84건으로 지속 증가세다.

광주 지역 보험사기 피해 금액은 2021년 69억 7000만원, 2022년 33억 7859만원, 2023년 43억

4972만원, 2024년 51억 3695만원 등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전남은 2021년 21억원, 2022년 22억원, 2023년 48억 3000만원, 2024년 17억원 등이었다.

보험사기 피해액은 전국적으로도 지속 증가해 지난해 역대 최대 수준으로 치솟았다.

금융감독원 등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1조 1502억원, 적발인원은 10만 8997명에 달했다. 전년 대비 적발금액은 338억원 늘어 3.0% 증가하면서 역대 최대 금액을 기록했다.

사기 유형별로는 진단서 위·변조 등을 통해 보험금을 과장 청구하는 '사고내용조작' 유형이 적발금액의 58.2%(6690억원)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 허위사고 20.2%(2325억원), 고의사고 14.7%(1691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보험 종류별로는 자동차보험 적발 금액이 5704억원으로 49.6%를 차지했으며, 장기보험도 4853억원으로 42.2%에 달했다. 보장성보험은 501억원

으로 4.4%를 차지했다.

연령대별로는 60대 이상 고령층의 비율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검거 인원 중 60대 이상은 25.7%(2만 7998명)로 가장 많은 비율을 보였으며, 50대 22.5%(2만 4528명), 40대 19.3%(2만 1055명), 30대 18.1%(1만 9746명), 20대 13.7%(1만 4884명) 등 연령대가 낮아질수록 검거 비율이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60대 이상 고령층 적발 인원의 비율은 2022년 22.2%, 2023년 22.6%, 2024년 25.7%로 해마다 늘어났다.

적발 인원 중 20~30대의 경우 자동차 관련 사기가 다수를 차지했다. 20대는 고의충돌, 음주·무면허 운전·자동차사고 조작 등으로 검거된 비율이 58.7%, 30대는 47.8%였다. 반면 60대 이상의 경우 허위입원, 상해사고 위장 등 병원 관련 사기가 39%로 높은 비중을 보였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장미의 계절 20일 오전 광주시 동구 조선대학교 장미원에 활짝 피어난 장미 사이로 시민들이 산책하며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나명주 기자 mjna@

공군, 24일 광주서 '전투기 에어쇼'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가 오는 24일 광주에서 전투기 '에어쇼'를 한다. 에어쇼 당일과 사전 연습일에 광주시 광산구 공군 제1전투비행단 비행기지 인근을 비롯한 광주 시내에 비행 소음이 크게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공군1전비는 오는 24일 광주시 광산구 공군1전비에서 '스페이스 챌린지 2025 in 광주' 행사가 열린다고 20일 밝혔다. 행사는 기상 악화시 25일로 미뤄진다.

행사 당일 오전 10시 20분, 오후 2시 20분 두 차례에 걸쳐 각각 1시간여 동안 공군 블랙이글스 에어쇼 행사가 치러질 예정이다.

사전 연습비행은 오는 22일 오후 4시 40분부터

30분간 실시될 예정이다. 기상이 악화될 경우 23일 사전 훈련을 치른다.

공군1전비 관계자는 "사전연습 및 행사 시 발생하는 기지 인근 및 광주 시내에 비행음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니 지역 주민들의 양해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스페이스 챌린지는 공군의 항공우주과학 축제로, 에어쇼를 비롯해 고무동력기·에어로켓 날리기, 항공우주체험, 항공기 시뮬레이터 등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별도의 사전신청 없이 입장 및 관람 가능하며, 행사 관련 정보는 공군 홈페이지 내 '공지사항'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가구별 월 양육비 111만원...3년세 14만원 늘어

생후 20개월에 어린이집 이용

지난해 교육비를 포함한 가구별 총 양육비용은 월평균 111만 6000원으로 집계됐다.

교육부는 20일 '2024년 전국 보육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3년마다 시행되는 법정 조사로, 2004년 처음 실시해 이번이 일곱 번째다.

이번 조사는 보육료나 유아학비, 부모급여 또는 양육수당을 수급하는 2494가구의 어린이집 3058개를 대상으로 작년 8~12월 시행됐다.

조사 대상 가구의 영유아 수는 3007명이고, 조사 가구의 취업률은 아버지 97.0%, 어머니 64.2%로 2021년보다 각각 1.8%포인트, 10.1%포인트 상승했다.

양육기관 이용률은 어린이집 55.3%, 유치원 26.5%, 반일제 이상 학원 2.5% 순이었다. 기관 미이용 비율은 15.7%였다.

보육·교육비와 식·의류비를 포함한 가구별 총 양육비용은 월평균 111만 6000원으로 2021년보다 14만원 올랐다. 다만 가구 소득 대비 비중은 19.3%에서 17.8%로 줄었다.

육아휴직 이용 경험은 어머니 단독이 34.5%로 가장 많았고, 아버지 단독 3.6%, 부모 모두 6.1%였다. 2021년 조사에선 각각 32.6%, 2.1%, 2.4%였다.

취업 중인 주 양육자가 주로 겪는 어려움은 '긴급 상황' (3.3점), '이른 출근' (3.2점), '늦은 퇴근 시간' (3.2점)이었다.

영유아가 최초로 이용한 기관은 어린이집이 97.3%, 유치원이 1.9%였다.

생애 최초로 보육·교육기관을 이용하는 시기는 19.8개월로 2009년 30개월에서 꾸준히 빨라졌다. 기관 선택 시 어린이집 이용자는 '집과의 거리' (32.8%), 유치원 이용자는 '프로그램' (26.8%)을 가장 많이 고려했다.

/연합뉴스

나주·보성 고택·종가 음식 체험하세요

전남관광재단, 24·31일 행사 참여자 모집

전남 대표 고택에서 숨겨진 역사를 들어보고 종가 음식, 염색체험 등을 경험해볼 기회가 생겼다.

20일 전남관광재단에 따르면 오는 24일(나주)과 31일(보성) 진행할 '남도고택 체험 프로그램' 참여자 80명을 모집한다.

'남도고택 체험 프로그램'은 단순한 관람에서 머무는 게 아니라 실제 종가 후손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고택의 역사와 전통문화의 깊이를 느

낄 수 있도록 기획된 프로그램으로, 참가자들은 고택 역사, 종가 내림음식 체험에 남도의 자연·풍광을 즐길 수 있다.

나주의 경우 24일 오전 전통의 멋을 간직한 도래한옥마을을 둘러보고 천연염색 체험에 시골 밥상을 맛보고 산림자원연구소 숲길을 산책한 뒤 오후 남파고택에서 종가 이야기를 듣고 종가 내림음식 '부꾸미'를 시식해보는 일정으로 진행

된다.

보성 체험 프로그램은 오는 31일 보성 강골마을에서 종부·종손과 종가 이야기를 나누고 드라마 촬영지로 알려진 이진래고택을 둘러보고 전통정원 열화정에서의 공연을 관람한 뒤 대한다원과 윤제림 등도 찾아간다.

전남 이외 지역에 거주하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각 일정당 40명을 모집할 때까지 선착순으로 접수한다.

나주 프로그램은 19일부터 22일까지, 보성은 29일까지 전남관광재단에서 서류를 내려받아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한 사람씩 보험사기
전국민이 경제부담

보험사기 알선·유인·광고 행위는 범죄입니다

24년 8월 14일부터
보험사기 행위를 알선·유인·권유 또는 광고하는 행위 시
최고 징역 10년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

보험사기 알선·유인·광고 행위 신고하세요

신고 방법

금융감독원 콜센터
국번없이 1332 ▶ 4번 ▶ 4번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www.fss.or.kr ▶ 보험사기 신고

각 보험회사 대표번호

각 보험회사 홈페이지
보험범죄신고센터

알선이란? 보험사기행위를 실행하려는 자 사이에서 이를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행위

유인이란? 기망 또는 유혹을 수단으로 보험사기행위에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행위

